마운드 다지고, 방망이 휘두르고…KIA의 반등



지난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삼성에 패하며 한국시리즈 진출이 좌절된 KIA 선수단이 경기 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진격의 KIA, '8위에서 3위로' 2026 시즌 마감

팀 평균자책점 7위→3위…탄탄해진 계투진, 반등 견인
김도영 홈런왕 등극, 카스트로·박재현 '히트 상품' 빛나
실책 123개→98개 수비 안정·도루 84개 뛰는 야구 주효

지난해 8위에 머물렀던 KIA 타이거즈가 1년 만에 정규시즌 3위로 뛰어올랐다. 주전들의 이탈과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다시 가을야구 무대에 섰다. 한국시리즈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전력 변화는 적지 않았다.

KIA는 지난 1일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1-6으로 패했다. 시리즈 전적 2승 3패로 2026시즌을 마감했다.

올해 KIA의 반등을 이끈 가장 큰 힘은 마운드였다.

팀 평균자책점은 지난해 4.66에서 올해 4.27로 낮아졌다. 리그 순위도 7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약점으로 꼽혔던 계투진이 달라졌다.

지난해 5.22였던 불펜 평균자책점은 올해 4.41까지 개선됐다. 시즌을 앞둔 전력 보강에 기존 투수들의 활약이 더해진 결과다.

선발진에서는 외국인 원투펀치가 중심을 잡았다. 네일은 13승을 거뒀고, 올러는 11승에 평균자책점 3.13을 기록했다.

불펜에선 전상현이 평균자책점 2.33으로 안정감을 보였다. 조상우는 72경기에 등판해 8승 21홀드를 올렸다. 성영탁도 60경기에서 3승 3패, 13세이브 7홀드, 평균자책점 3.47로 활약했다.

타선도 짜임새를 갖췄다.

지난겨울 최형우와 박찬호가 FA 시장에서 떠났다. 중심타선과 내야의 주축 자원이 빠지면서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컸다.

공격의 공백은 김도영과 카스트로, 박재현이 메웠다.

단연 핵심은 김도영이다. 135경기에서 45홈런 118타점을 올리며 홈런왕에 등극했다. 지난해엔 부상으로 30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올해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외국인 선수 카스트로는 퇴출설을 딛고 21홈런 88타점을 올렸다. 박재현도 19홈런 69타점을 보태며 팀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나성범도 지난해 10홈런에서 올해 31홈런으로 장타력을 되찾았다.

수비도 한층 안정됐다. 지난해 리그 최다였던 팀 실책은 123개에서 98개로 줄었다. 수비율도 0.977에서 0.981로 높아졌다. 투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였다.

주루에서는 효율이 좋아졌다. 팀 도루는 77개에서 84개로 늘었고, 성공률도 77.8%에서 81.6%로 상승했다. 박재현과 김민규 등 젊은 선수들의 빠른 발이 돋보였다.

그러나 3위까지 올라서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KIA는 4월 초 최하위권에 머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강점으로 꼽혔던 방망이마저 제 힘을 내지 못했다.

5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7월9일까지 58경기에서 32승 25패 1무를 거뒀다. 이 기간 팀 홈런은 72개로 리그 1위였고, 평균자책점도 4.08로 공동 3위였다. 전반기를 4위로 마쳤다.

8-9월에는 투타가 함께 힘을 냈다. 팀 평균자책점은 3.66으로 리그 1위였고, 타율도 0.273으로 3위에 올랐다. 34경기에서 20승 14패를 거두며 순위 경쟁을 이어갔다.

승부처는 10월 초 잠실이었다. LG와의 3연전을 모두 역전승으로 장식하며 3위 자리를 탈환했다. 정규시즌 최종전에서도 LG를 4-2로 꺾었다. 김도영의 결승 투런포가 승부를 갈랐다.

최종 성적은 79승 63패 2무. 정규시즌 3위로 준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따냈다.

가을야구에서도 기세를 이어갔다. LG와의 준플레이오프를 3연승으로 통과하며 플레이오프에 올랐다. 삼성과는 5차전까지 맞섰지만 끝내 한국시리즈 문턱을 넘지 못했다.

투수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네일은 3경기에서 16⅓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1.65로 호투했다. 전상현은 7⅓이닝 무실점으로 3세이브를 올렸다. 정해영도 3⅓이닝을 실점 없이 막았다.

선발 올러의 부진은 뼈아팠다.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4⅔이닝 5실점, 5차전에선 2이닝 4실점했다.

그래도 전력 개편의 성과는 뚜렷했다. 마운드와 수비가 살아났고, 타선도 화력을 과시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 수확이었다.

다시 우승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 다음 목표는 한국시리즈다. /주홍철 기자

KIA 김도영·박재현, 6일 APBC 대표팀 합류

오른손 투수 최민석(두산 베어스)과 신영우(NC 다이노스)가 나란히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2026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 출전하지 못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전력강화위원회는 오른쪽 팔꿈치 부상을 입은 최민석과 신영우의 대회 불참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O는 지난달 13일 대표팀 명단 33명을 발표했으며, 최종 대회 출전 인원은 28명이다.

플레이오프를 치른 KIA 타이거즈 소속 선수 5명은 오는 6일 상무와의 연습경기부터 대표팀에 합류한다. 김도영과 박재현, 성영탁, 곽도규, 김태형이 해당한다.

최원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날부터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합숙훈련을 진행한다. 8일까지 국내 훈련과 연습경기를 소화한 후 9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이번 대회는 12-15일 일본 도쿄돔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 등 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한국은 12일 호주, 13일 일본, 14일 대만과 차례로 예선을 치른다. 예선 상위 2개 팀은 15일 결승에서 맞붙고, 나머지 두 팀은 3위 결정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광산서 세대 넘어 하나된 태권도 한마당 축제 성료

제2회 광산구청장배 전국실버태권도대회·2026 광산구청장배 태권도대회 열려

세대를 아우르는 태권도인들의 축제인 제2회 광산구청장배 전국실버태권도대회와 2026 광산구청장배 태권도대회가 지난달 31일 호남대에서 1천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임문영 광산구을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장, 김용태 광산구체육회 부회장, 이귀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미래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윤판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실버태권도연합회장, 이영석 광주시태권도협회 명예회장, 윤웅철 광주시태권도협회 회장, 이동원 광주시태권도협회 부회장 겸 광산구태권도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제2회 광산구청장배 태권도대회 경기 결과 청룡태권도장이 전 종목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삼성태권도장이 품새 종합우승, SJ 태권도장이 스피드 발차기 종합우승, 튼튼한 태권도장이 격파부문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실버태권도대회에서는 영광노인복지관이 종합우승을, 첨단사회복지관과 행복나루복지관이 태권체조 공동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 꿈꾸는 석사 태권도장 서정애씨는 공인 품새 유단자 왕중왕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한편 이날 개회식 전·후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유급자는 손날 또는 주먹격파, 유단자는 발 격파로 진행된 이벤트 격파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경품을 선물했고, 전자 격파측정기(재미타) 이벤트 격파에 참가한 어르신에게는 보톡스 이용권을 증정했다. 이밖에 격파 왕중왕 이벤트에 참가한 전원에게도 경품을 전달하며 추억을 선사했다.

윤판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실버태권도연합회장은 "태권도에는 나이가 없다.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은 태권도의 정신이며, 모든 태권도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승패를 떠나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원 광산구태권도협회장은 "광산구청장배대회와 전국실버태권도대회를 찾아준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태권도의 열정에는 나이가 없다. 오늘 광산에서 함께 한 여러분들의 열정이 더욱 빛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KIA의 새로운 미래, 최유찬, 권다결, 이송찬, 김찬민

NPB 오릭스 버팔로스 마무리 캠프 간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일본프로야구(NPB) 오릭스 버팔로스의 마무리 캠프에 유망주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파견했다.

파견 선수단은 투수 3명(이송찬, 김찬민, 최유찬), 포수 1명(권다결), 코칭스태프 3명 등 총 7명이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본 고치현 동부 야구장에서 열리는 오릭스 마무리 캠프에 합류해 훈련에 참가한다.

이번 파견은 유망주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성장 가능성을 넓히고, 선진 야구의 육성 시스템을 체득해 구단의 육성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KIA 관계자는 "선수단에 선진 야구 훈련 및 체험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향후 해외 구단과의 국제 교류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족구로 하나된 광주와 中 칭다오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교류 공모 선정…내년 1월 선수단 파견 협력 강화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한·중 지역 및 종목 간 청소년스포츠교류 사업' 공모에 족구 종목이 선정돼 국비 2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의 국제 스포츠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력 향상과 양국 간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족구 종목은 광주시족구협회(회장 박영민)를 중심으로 재중국족구협회와 협약을 맺고 청소년팀 교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선수들에게 국제경기 경험을 제공하고, 스포츠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족구협회는 내년 1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일원에 선수단을 파견해 한중 청소년 스포츠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류는 양국 임원과 선수 등 50여 명이 참여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합동훈련, 친선경기, 문화탐방, 족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전갑수(사진) 광주시체육회장은 "일본에 이어 중국과 스포츠교류 사업까지 선정돼 광주 청소년 선수들에게 더욱 폭넓은 국제 스포츠 교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족구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